



# 반세기동안 해운 외길을 걸어 온 태영상선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하늘의 뜻도 헤아릴 수 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50주년을 맞은 태영상선이 100년 기업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힘찬 도약에 나섰다.

태영상선은 4월1일 조 선호텔 톨립룸에서 무역업계와 해운업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회사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고객감동의 초일류 물류기업'으로 거듭 나기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기업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동안 기업의 명맥과 성장을 유지해 온 회사는 손 꼽을 정도로 흔치 않다. 따라서 한눈팔지 않고 묵묵히 해운 외길을 걸어 온 태영상선의 창립 50주년은 회사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운의 자랑이자 국가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53년에 설립된 남성해운, 1954년에 설립된 고려해운 등 우리 외항해업운업계에서도 50년 이상된 기업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는 한국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영상선은 1976년 한일 재래 정기선서비스를 개설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포스코 철강수송 전용선서비스와 한일과 한중간 컨테이너서비스 등 새로운 항로를 잇따라 개척하면서 서비스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화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사로 성장했다.

이제 태영상선은 50주년을 기점으로 고객중심경

영을 통해 이룩한 신뢰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감동의 초일류 물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100년 기업을 향한 힘찬 항진이 시작된 것이다.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속에서 태영상선이 어느덧 50년 역사를 걸어왔다"며, 태영상선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기업환경 및 국제물류의 급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박, 장비 등의 현대화, 해외 네트워크 기반 확충, 웹 방식의 첨단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지향적 물류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21세기 디지털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사홈페이지에 창립 50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기업 전문가인 케빈 케네디와 메리 무어는 공동으로 펴낸 책 '100년 기업의 조건(Going The Distance)'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흡수나 소멸은 기업 경쟁의 현실이며, 동시에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라고 적고 있다.

나아가 그 같은 위기 상황을 경영상의 위기와 지배 구조상의 위기로 나누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 '100년 기업'의 꿈이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태영상선이 100년 해운기업으로 거듭 나갈 기대해 본다.

